

백범 김구 독후감 대회 수상 소감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뉴델리 한글학교에 다니는 5학년 송주원입니다.

이번 백범 김구 독후감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어 정말 놀랍고 기뻐요. 사실 발표가 너무 늦어져서 엄마랑 저는 “그래도 김구 선생님 책을 읽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솔직히 엄청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읽은 책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말이에요. 김구 선생님은 나라가 강해지길 바라셨지만, 총이나 무기보다는 문화의 힘을 믿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그럴겠지만, 저도 인도에 살면서 외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3년 전 인도에 처음 왔을 때는 친구들이 “너 BTS 알아?” 하고 물어봤는데, 요즘엔 학교에서 케이팝 데몬헌터스 노래가 나오고, 카페테리아에는 김밥이 새 메뉴로 생겼어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니하오”나 “곤니찌와” 대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선생님이 지금의 한국을 보신다면 정말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문화의 힘은 뭘까?’ 생각해봤어요. 아직은 학생이라 큰일은 못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한국을 좋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끝까지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덕분에 김구 선생님을 더 잘 알게 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커졌어요.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이런 대회를 열어주신 선생님들과 한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원아, 마감기한 잊지 마!” 하시며 잔소리해주신 부모님께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김구 선생님처럼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인도 뉴델리 한글학교 5학년 송주원 —